

“세계 속에 한국 광학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사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기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금번 한국광학기기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 중구입니다.

본 협회는 지난 1989년 우리나라에 처음 광산업이 국가 8대 첨단산업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을 시작으로 17년간 국내 광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정부에서는 광학산업을 21세기 첨단 미래산업으로 선정하고 단계적인 투자 및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학 선진국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며 달려온 시간과 협회의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회와 회원사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3년동안 본 협회 회장으로 선임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산업의 글로벌 경쟁체제가 가속화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광산업 역시 위기와 기회가 혼재된 변화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하겠습니다.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빠른 추격을 받으면서 우리의 관심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기술력 확충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부품 제조업체도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로 공장거점을 이동하는 것이 이제 당연지사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역량이 한데 모아졌을 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겨 집니다. 협회는 회원사들과 손을 맞잡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광학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으로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국내 광학산업계의 공통 애로기술과 사업화가 가능한 첨단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하여 관련 희망업체



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광학산업의 원천기술인 정밀광학렌즈 및 박막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국가간의 국제협력사업, 국내외 전문전시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공동 참여사업을 발굴하여 회원사에 정부정보조금 수혜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학 및 사무기기 표준화사업 등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수출장벽을 허무는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협회의 얼굴인 「광학세계」도 디지털화 추세 및 디지털 세대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웹진화시켜서 누구나 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내용을 더욱 보강하여 광학산업분야의 유일한 전문잡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협회 홈페이지를 보완하고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회원사가 협회를 쉽게 이용하고 회원사의 관련정보를 외부에 홍보하는 교량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은 회원사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협회를 주축으로 회원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회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큰 성원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회원사의 크나큰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장 이 중 구